

“독립 위한 그날의 희생 널리 알려야죠”

광주예고 학생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33만여원 기부 항일 독립지사 엽서·무궁화 우표 등 제작·판매해 성금 마련

“일제에 의한 아픔과 상처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워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분들의 희생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광주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순국선열·애국지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금 활동을 전개, 수익금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전달하면서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불어넣고 있다.

22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예술고등학교 3학년 공미정·김도희 학생이 최근 교내에서 ‘건곤갑리’ 프로젝트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 33만8천600원을 기부했다.

건곤갑리 프로젝트는 광주예술고 미술과 3학년 학생 7명(공미정·김도희·염유진·김혜정·황은진·서지민·김현서)이 참여한 활동으로, 이들은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팔찌·태극기·엽서·스티커 등을 제작했다.

이후 지난 15-19일 교내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전개했고 수익금을 마련했다.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전시 및 판매 계획은 물론 창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학생들 스스로 부담했다.

제작 물품은 ▲유관순·홍범도·김좌진·윤봉길·이봉창·안중근·김구 등 항일 독립지사 7명의 인물 엽서 3종 60장 ▲무궁화를 콘셉트로 한 대한민국 우표 스티커 ▲기미독립 선언문 사진을 넣은 책갈피 ▲‘안중근 혈서 태극기’와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그려 제작한 ‘진관사 태극기’ 등을 광복전으로 제작한 태극기 3종 55장 ▲곤을 이용해 오방색과 태극 문양을 매듭으로 표현한 팔찌 70개를 제작했다.

팔찌 가격은 태극기 1장 1천원, 팔찌 2천원, 무궁화 우표 스티커 1장 300원, 독립운동가 엽서 1매 1천원이었으며, 태극기 1장과 팔찌는 세트 3천원에 판매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도희, 공미정 학생.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또 물품 판매 부스의 전시 분위기를 위해 윤동주(참회록, 별헤는 밤), 이육사(광야, 절정), 심훈(그날이 오면), 이상화(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용운(님의 침묵) 시인의 대표적인 저항시 7점을 붓글씨로 작성해 게시했다.

프로젝트를 기획한 공미정(19) 학생은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웠던 분들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었다”며

“디자인 전공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내 학우들에게라도 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해당 기부금을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장은정 기자

‘KIA 상징’ 호랑이 ‘러브’ 폐사

2009 우승 기원 삼남매 중 둘째...종양 온몸에 퍼져

2009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V 10을 기원하며 아이·러브·기아(I·LOVE·KIA)로 이름 붙여진 뽕갈호랑이 삼남매가 모두 광주 우치동물원을 떠났다.

22일 광주 우치동물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삼 남매 중 둘째 러브(암컷)가 지난달 13일 폐사했다.

첫째인 아이(수컷)는 2019년 다른 지역 동물원으로 옮겨졌고, 막내 기아(수컷)는 2022년 폐사해 러브는 ‘오빠, 동생’ 없이 우치동물원에서 지내왔다.

동물원 측은 통상 호랑이 수명이 15년을 채우고 들쭉날쭉한 식육에 살이 빠져가는 러브의 모습에 전신마취로 검사한 결과 유선 종양이 온몸에 퍼진 것을 발견했다.

러브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동물원 측은 전북 임실의 공공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한 뒤 우치동

물원 한편에 수목장을 마련했다. 호랑이 삼남매는 2009년 6월 6일 우치동물원에서 태어났다.

동물원 측은 당시 모처럼 1위를 달리던 KIA의 10번째 우승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아이·러브·기아로 부르기로 했다.

그해 한국시리즈 개막전에 나란히 등장해 야구팬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KIA는 호랑이 기운을 받고 10번째 우승을 이뤘다.

박자운 수의사는 “사육사들이 초유를 사다가 먹여가면서 직접 키운 아이들이라서 더 애뜻하다”며 “평생 방사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게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더 지내다가 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디가 아팠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보내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선경 기자



“더위야 가라” 한해 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22일 광주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북구 일곡근린공원에서 한 학생이 수돗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애리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5 해질 19:43 달돋이 21:20 달지 07:11

| | | |
|-----|------|-------|
| 광주 | 구름많음 | 26/34 |
| 목포 | 구름조금 | 26/32 |
| 여수 | 구름비 | 26/29 |
| 나주 | 구름많음 | 25/33 |
| 완도 | 구름많음 | 25/32 |
| 구례 | 흐림 | 25/34 |
| 강진 | 구름많음 | 25/32 |
| 해남 | 구름조금 | 26/32 |
| 장성 | 구름많음 | 26/32 |
| 보성 | 구름비 | 24/31 |
| 순천 | 흐림 | 26/34 |
| 영광 | 구름많음 | 26/32 |
| 진도 | 맑음 | 26/31 |
| 흑산도 | 구름많음 | 24/29 |
| 고흥 | 구름비 | 25/32 |

● 생활정보지수
 놀이 50 빨래 50 세차 50 운동 60
 자외선 차단체 필수 야외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날 수분 섭취 충분히

| 위치 | 오전/파고(m) | 오후/파고(m) |
|----|---|---------------------------|
| 서해 | 앞바다 0.5-1.5, 먼바다(북) 1.0-2.5, 먼바다(남) 1.0-2.5 | 0.5-1.0, 1.0-2.5, 1.0-2.0 |
| 남해 | 앞바다 0.5-1.0, 먼바다(동) 0.5-1.5, 먼바다(서) 0.5-1.0 | 0.5-1.0, 0.5-1.5, 0.5-1.5 |

● 전국 날씨

| 날짜 | 광주 | 서울 | 강릉 | 대구 | 제주 |
|-----------|-----------|-----------|-----------|-----------|-----------|
| 7월 24일(수) | ☁ (26/34) | ☁ (26/30) | ☁ (28/33) | ☁ (26/33) | ☁ (27/35) |
| 25일(목) | ☁ (26/33) | ☁ (25/33) | ☁ (27/34) | ☁ (26/34) | ☁ (28/32) |
| 26일(금) | ☁ (26/31) | ☁ (26/32) | ☁ (27/31) | ☁ (25/32) | ☁ (27/33) |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전남도교육청, ‘의대 수시’ 대비 지원

진로진학상담센터 4곳서 모의면접 실시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가 2025 대입 변화 중 하나인 의대 정원 확장에 따라 수시 지원 학생들을 위한 면접 지원에 나섰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순천·나주·광양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의대 수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중미니면접(MMI: Multiple Mini Interview) 대비를 위한 실전 모의면접 형태로 이뤄졌다. 면접은 사전 신청을 받아 31개교 67명이 참여했다.

받고 있는 방식으로 지원자가 여러 면접실(2-6개방)을 거치면서 다양한 상황을 제시받고 이에 맞는 답변을 하는 형식의 면접이다.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오는 9-11월에도 다중미니면접(MMI)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은섭 진로교육과장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 면접 상황을 미리 경험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어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과 현재의 만남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의 초대, 1913송정역시장으로 놀러오세요!

111년의 시간 그리고...
 1913년에 이곳에서 처음 ‘매일 송정역전시장’ 이 시작되었습니다. 111년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1913송정역시장]으로 바꿨고, 누적된 시간이 많은 만큼, 송정역시장은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방문객들에게는 다양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었습니다.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고, 간판의 디자인은 상인들의 추억을 담아 제작되었습니다. [1913송정역시장]은 바꾸기 위한 변화가 아닌, 지키기 위한 변화로 탄생한 시장으로 광주송정 KTX 역에서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광주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휴무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자율 휴무- 매월 넷째주 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산구 문의 : 062)650-2099